

K-축산물 세계로... 식약처가 함께한다!

- 축산물 업계와 K-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실시
- 식약처장, 규제 당국 네트워크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 지원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 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최소 5일*)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 (기존) 수출증명서 신청, 발급 및 우편수령까지 최소 5일 소요 → (개선) 즉시 발급

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APFRAS)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K-축산물 수출 활성화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동희	043-739-2170
		담당자	사무관	남궁종환	043-719-2168
담당 부서 (협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성일	062-602-1478
		담당자	주무관	박정섭	062-602-1479



□ 배경

- 축산물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해 K-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개 요

- 일 시 : '26. 6. 17.(수), 09:40 ~ 11:30
- 장 소 : (주)하림(전북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 참석자 : 처장, 축산물 수출업체 등 10명
 - (식약처) 처장, ^{본부}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광주청}청장,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등
 - (업 체) (주)하림 등 관내 축산물 수출업체 5개소*
- * (주)하림, (주)참프레, (주)사조원 나주공장, (주)싱그린FS, 총체보리한우
- 주요 내용
 - 수출축산물 생산현장 점검 및 수출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

□ 세부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현장방문	09:40~09:55	15'	▶ 도착 및 회의실 이동 ▶ 티타임	처 장 하림 대표
	09:55~10:25	30'	▶ 수출축산물 생산현장 점검	(주)하림
간담회	10:25~10:35	5'	▶ 인사말씀	(진행) 농축과장
		5'	▶ 광주청 수출 현황 소개	
	10:35~11:15	40'	▶ 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처장님 답변	업 체
	11:15~11:20	5'	▶ 마무리 말씀	처 장
	11:20~11:30	10'	▶ 기념촬영 및 환송	-